

2020 SPRING  
Vol. 04

YEONGGDO



LOCALLY

부산 생활 문화 매거진  
브 · 로 · 컬 · 리





# CONTENTS



## 04

### 브로컬리 투어

B로컬리가 추천하는 영도, 올레(Olle)기

## 08



### 부산한 우리

빈 공간에 문화가 차오르다, 재생하는 영도

## 12



### BUSAN NER

이야기를 담는 바다  
카페로 맺은 인연, 놀라운 한국생활



## 14

### B스켓

손끝으로 공감을 빛는 영도의 제페토 할아버지  
- 마리오네트 김술 인형작가 공연가



## 16

### 까만봉다리

시장은 그곳에 있다  
- 영도 남항시장

## 18



## 21

### 우리동네 인포그래픽스

강강이예술마을을 말한다  
- 영도의 새로운 문화예술 랜드마크  
'강강이예술마을'

### 특별한 저녁

소중한 지구를 지키는 환경 어벤져스 강그린  
- 생활문화동아리 강그린 양정실 대표



## 20

### 3번테이블

쇠 냄새와 불꽃 향기에 더욱 맛있게 나는 곳  
- 대평동 육이네집



## 21

### 우리동네 인포그래픽스

강강이예술마을을 말한다  
- 영도의 새로운 문화예술 랜드마크  
'강강이예술마을'

## 22



### 보라카이

가진 어텔 가, 여 와봐라! 영도할매 추천 핫플  
- 강강이생활문화센터

부산생활문화매거진 브로컬리

2020 **SPRING B·LOCALLY** Vol. 04

발행일 2020.05.14 발행인 강동수 감수 이미연 PM 하경희 기획 하영문 편집실 한성1918-부산생활문화센터 TEL. 051-257-8038 통권 4호 ISSN 2671-910X 발행처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13(동광동) 한성 1918-부산생활문화센터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부산문화재단 후원 부산광역시 디자인·제작 CCA TEL. 051-647-5991 발간인 정현권 편집책임·에디터 최명신 인터뷰·에디터 김정원 편집디자인 하정혜 별지일러스트 이희훈

부산생활문화매거진 **B·LOCALLY** 브로컬리는 부산문화재단 한성1918에서 만듭니다.

### 브로컬리 길라잡이

건강한 채소 브로컬리처럼 신선한 로컬리티의 맛을 담아낸 B·LOCALLY가 봄을 맞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재생의 에너지로 한창 움트고 있는 영도를 찾았습니다.

우선 **브로컬리 투어**로 B로컬러 추천 코스를 따라 봉래산을 한 바퀴 돌며 영도를 내려다볼까요? 맑은 공기를 쐬고 내려와 **부산한 우리**가 주목하는 가장 '부산'스러운 영도, 재생의 'Young도'도 만나봅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당신,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 당신도 모두 부산네! **BUSAN NER**에서는 캐나다로 떠난 부산녀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부산녀의 소식을 전합니다. **B스켓**으로 마리오네트 공연가 김술 작가와 함께 로컬 예술의 바사함을 맛보고, **까만봉다리** 속에 담긴 오성은 소설가의 남항시장 옛 정취에 흠뻑 취해봅니다.

**특별한 저녁**을 보내고 있는 영도 생활문화동아리 강그린의 양정실 대표의 환경 이야기를 지나 **3번테이블**에서는 육즙이 가득한 수육과 싱싱한 회무침의 감칠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인포그래픽스**로 한눈에 훑어보는 강강이예술마을과 **보라카이**에서 영도할매가 추천하는 핫플, 강강이생활문화센터까지 함께 둘러보세요.



### 과거와 현재가 만나 젊음을 재생하는 섬, 영도

진정한 힐링을 만나는 영도의 카페와 소울푸드 길잡이 역할을 해줄 맛집리스트, 두박이 여행을 알차게 도와줄 투어정보까지! 로컬의 진짜 맛과 멋에 풍덩 빠질 수 있도록 알차게 담았습니다.

### 함께 만들어가는 브로컬리

부산생활문화매거진 브로컬리는 독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다음 호에 발간될 브로컬리의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제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한성1918-부산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1918.bscf.or.kr)로 접속 후 게시판의 기고 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



### 부산너 BUSAN NER

부산에 사는 외국사람, 외국에 사는 부산사람! 부산너를 통해 일상을 나누어요. The BUSANNER foreign language version guide is available on the website. 문의 051-257-8035



### 한성1918 인스타그램

브로컬리에서 다음호 소재와 독자의 의견을 받습니다. SNS 메시지를 통해 제보해주세요!

해당 표지는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흰어울마'를 야경(작자: 권기학, 2018년)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누리부산(https://tour.busan.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타항에서 영도로 온지 16년. 타항에서 지낸 시간만큼 영도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된 데는 다른 이유보다 '영도가 좋아서'다. 지난해 영도 사람에 대한 이야기책을 쓰고 난 뒤로는 영도와 더 가까워진 기분이다. 그러다 최근, 평소와 다른 시점에서 영도의 여러 면을 볼 수 있는 곳을 알게 됐다. 최고 높이 260미터에 길이 6.5킬로미터, 걸으며 영도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곳, 멍하지 않고 사람이 흐르게 하는 곳, 무엇보다 자연과 삶의 경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영도 '봉래산 둘레길'이다. <사진 1>

둘레길에 도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크게 구분해 영도에 있는 6개 동(남항, 동삼, 봉래, 신선, 영선, 청학) 중 남항동을 제외한 모든 동에서 둘레길로 직접 진입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도 나는 청학동 구 해사고 뒤편에 새로 조성된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옆길로 진입하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 기념관을 지나면 둘레길로 진입하는 두 갈래길이 나오는데 나는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기를 택한다. 그 방향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차 익숙해진 풍경과 마주한다.

무덤이 있다. 그것도 많은 무덤이. 함께 맞추기라도 한 듯, 균일한 형태의 나무 묘비가 무덤 앞에 박혀 있어 묘한 느낌을 준다. 영도 청학동과 닿아있는 둘레길. 나무 묘비들 사이로 오래된 돌비석 하나가 눈에 띈다. 1920년(비문에는 대정 9년(大正九年)으로 적혀있음) 작고한 여인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왼편에는 고인의 아들과 그 자손의 이름이 새겨져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순 없으나 족히 수십 년은 되었을 이 비석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영도를 굽어보고 있었을까. <사진 2>

# B · 로 · 컬 · 러 · 가 · 추 · 천 · 하 · 는 영도, 올라(Olle)?!

글 하은지(B-Local 대표, 구성작가)  
사진 하영문

영도는 산 중턱까지 사람들의 삶으로 출렁이는 곳이다. 영도에 살고 있는 11만여 명의 삶의 형태는, 바다를 면할 때와 오롯이 육지일 때, 산을 면할 때 모두 제각각이다. 이런 양파 같은 영도를 속 알맹이부터 걸쭉질까지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



사진 1 봉래산 360 둘레길 코스 안내도  
사진 2 청학동 둘레길에서 만난 오래된 돌비석

\* 영도구청 홈페이지(www.yeongdo.go.kr) > 문화관광 > 코스여행 > 봉래산 둘레길 16코스 > 1코스 봉래산 둘레길



무덤을 끼고 걷다보면 '청학동 해돋이마을'에 다다른다. 예전 이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여기가 공동묘지 자리였고, 한 국전쟁 때 피난 와서 오갈 데 없던 사람들이 거처를 마련해 살았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다. 그 말을 증명하듯 비석 없는 무덤들이 마을과 바짝 면해 있다. 조금 전부터 나와 앞서 거니 뒤서거니 하던 어머니 두 분이 무덤 쪽으로 내려가 그 사이를 요리조리 걸어 작은 뒷밭에 멈춘다. 무덤 사이로 난 길에 반지르르 한 걸 보니 두 분 말고도 사람의 왕래가 잦은 듯하다. 그래, 살기로 가는 여정에 두려울 게 무얼까 싶다.

<사진 3> <사진 4>

공동묘지마을, 수용소마을이라 불리던 이곳이 해돋이마을로 빛날 수 있었던 건 주민 분들의 마을 사랑과 부단한 노력 덕분이었다. 그 흔적인 전망대와 경로당, 물탱크 창고를 돌레길에서 볼 수 있다. 지금이야 이곳이 전망 좋은 별장 땅이라지만, 과거 산기슭은 평지에 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공간이었다. 울퉁불퉁한 죽음의 공간을 삶의 공간으로 바꾼 해돋이마을 사람들의 힘이, 길을 걷고 있는 나에게까지 전해진다.

체육공원을 가로질러 편백나무 숲길을 걷다보면 어느새 풍경이 바뀐다. 이제부터는 봉래동 산복도로 마을(봉산마을)과 면한다. 여기서 봉래동 조선소군과 보세창고, 그 너머로 부산항대교와 신선대-감만부두가 보인다. 영도 봉래동은 부산항의 배후지로서 선박 신조와 수리, 상품 보관처 역할을 하며 성장했고, 또 서서히 쇠퇴하고 있다. 돌레길에 서서 항만 시설에 둘러싸인 봉래동의 모습을 보니,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온 그들의 관계가 한 눈에 읽히는 듯하다. <사진 5>

사진 5



사진 6



사진 3



사진 4



사진 7

넓은 기와지붕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면 분위기와 냄새가 달라진다. 신선동과 면한 돌레길 주변에는 많은 사찰과 제당이 있다. 이런 곳들이 산 위에서부터 계곡을 따라 자리잡고 있는데, 웬지 다른 곳보다 더 어두운 듯하고, 공기도 묵직하게 느껴진다. 영도에는 제주, 전라, 강원, 멀게는 이북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이 많아서인지 다양한 종교시설이 있다. 돌레길보다 조금 위쪽에 자리한 '봉래산 산제당'은 탐라국 여왕이 신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실제 제주에서 영도를 거쳐 고려 수도로 군마를 길러 조달하던 역사적 사실과도 관계가 깊다. 종교시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의미겠으나, 영도가 가진 다양성과 포용력을 느끼게 해주는 상징처럼 여겨진다. <사진 6>

영선동과 면한 길에 들어서면 자연스레 시선이 남향동과 광강마을까지 이어진다. 그 너머의 남향南港과 부산 원도심도 한 눈에 들어온다. 광강마을은 도선渡船으로 육지의 원도심과 영도를 이어주었고, 충무동 어선을 죄다 고쳐온 선박수리의 메카다. 이런 광강마을의 부흥에 힘입어 성장한 곳이 상업지역인 남향동과 주거지역인 영선동이다. 7~80년대에 영도로 와 터를 잡은 분들의 말에 따르면 "영도로 오면 일단 영선동 산복도로에다 하꼬방을 잡아 놓고, 남향시장에서 노점을 하거나 광강마을에서 조선소일을 하거나 남포동에 가서 원양선이나 고등어배를 탄다"는 것이 거의 생존 공식과 같았다고 한다. 돌레길에서 지역을 본다는 것은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경험이다. 인접한 지역들을 한데 놓고 보면, 마을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그려진다. <사진 7>

사진 8



시원스레 펼쳐진 바다를 끼고 걷다보면 동삼동에 다다른다. 동삼동은 어업 활동이 활발한 곳이며, 그 중에서도 '하리항 下里港'은 영도 내에서 여전히 어항漁港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구술책 작업을 하며 만난 하리의 한 선장님은, 하리항에서 출발해 대마도 인근까지 가 조업을 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해양관련 기관도 밀집해있다. 이러한 동삼동의 특성은 동네 뒤편으로 열린 바다를 보아야 이해가 된다. 돌레길에 서서 동삼동을 바라보면 영도에게 있어 바다가 얼마나 풍부한 자원의 보고이며 상상력의 공간인지 잊지 않게 해준다. 그렇게 자연과 삶의 경계인 돌레길을 따라 영도의 여러 마을과 각양의 매력을 되짚으며 걷다보면, 두 시간 정도 만에 출발한 장소에 도착하게 된다. <사진 8>

사람이 사는 골목 구석구석을 걷는 것도 좋다. 하지만 때론 높이, 멀리서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게 있다. 돌레길은 우리 사는 공간이 크고 작은 관계 속에 존재하며, 그 관계를 통해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걸 일깨워준다. 좁은 돌레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눈인사를 건네는 순간만으로도, 우린 그걸 충분히 느낄 수 있다.

- 사진 3 숲을 채워주기 위해서일까? 무덤 사이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 사진 4 청학동 해돋이마을 안내도
- 사진 5 봉래동 돌레길에서 본 부산항대교와 그 너머 부산항 부두
- 사진 6 신선동 돌레길과 사찰
- 사진 7 남향동, 광강마을, 남향南港 그리고 부산 원도심 풍경
- 사진 8 돌레길에서 바라본 동삼동과 그 너머의 바다



# 빈 공간에 문화가 차오르다, 재생하는 — 영도

글 오진선 삼진이음 대동전수방 홍보매니저  
사진 삼진이음, 아잉스튜디오, 끄티, 심오한집 제공



#영도핫플  
#창고마켓  
#대동전수방  
#엠마켓





영도는 섬이다. 남포동에서 영도대교, 중앙동에서 부산대교가 봉래동, 남항동을 이어주고, 감만부두에서 시작된 부산항대교는 영도를 거쳐 남항대교를 지나 송도까지 이어진다. 그중 매일 오후 2시 15분에 도개행사가 열리는 영도대교는 가장 사람 냄새나는 다리다. 피난민들은 '영도다리 아래에서 만나자'고 약속했고, 아이들은 '영도다리 아래에서 주워왔다'는 부모님의 농담을 들으며 커왔다. 소금기 머금은 바람을 맞으며 빨간 영도대교를 건넌다. 발 아래로 파도가 출렁거리고, 자동차와 배가 분주히 지나간다. 자전거를 탄 할아버지, 캐리어를 끌고 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 꽤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고 있다.

영도에 들어서면 삼신 할매가 살고 있다는 봉래산이 눈앞에 우뚝하고, 산허리 아래에 집들이 어깨를 맞대고 빼곡이 들어차있다. 3~40년 전까지만 해도 누가 새로 이사 오면 마을 사람 모두 경사진 골목길에 나와서 세상을 옮겨주는 훈훈한 곳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햇살만 가득히 조용하다. 담장 너머 푸르른 바다가 한 조각, 데칼코마니 같은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가 한 조각 눈에 들어오는 곳, 바로 영도다.

영도는 전국에서 빈집이 가장 많다고 한다. 빈집은 빈 공간만큼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만들고 마을의 생기를 앗아간다. 도시재생은 마을을 살리는 방패다. 깨진 유리창을 보수하는 것처럼, 도시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사람 중심의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지금 영도 곳곳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프리마켓, 전통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문화적인 콘텐츠들이 영도 본연의 색깔과 어우러져 외부에서도 영도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스타벅스도 멀티플렉스 영화관도 없지만 영도만의 독특한 문화가 넘쳐나고 있다.

부산대교를 타고 영도에 들어오다보면 왼편으로 수십 대의 선박이 정박해있고 창고군이 무리지어 있는 낯선 풍경이 펼쳐진다. 봉래동 물양장으로 불리는 이 일대에는 선박 수리 공업소들이 몰려 있어 평일에는 제법 활기찬 분위기가 흐르지만 주말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평일 공업소가 운영되는 시간에는 직원들과 차들이 분주히 오가지만 휴일이면 인적이 끊기기 때문이다. 이런 건조한 주말에 활기를 불어 넣은 것은 **M마켓**이다.

M마켓은 삼진이음 대동전수방이 주관하는 프리마켓으로, 창고군 지붕의 모양에서 M을 따왔다. 마켓이 열리는 날은 그야말로 축제다. 셀러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버스킹 공연으로 떠들썩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한쪽에는 푸드트럭이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아이들은 잡화점을 직접 운영하고 바닥에 분필로 그림을 그리는 등 신나게 뛰어다닌다.



M마켓



끼티

# Young Do



무명일기



끼티



삼진이음



손목서가



삼진이음의 대동전수방



비밀 영도

계절과 시기에 맞춰 다양한 주제로 열려 즐길 거리가 많다는 것도 M마켓의 매력 중 하나다. 지난해 8월에는 더운 낮을 피한 저녁 무렵에 마켓이 열려 야시장 분위기가 물씬 났다. 푸른 조명이 더해진 창고군에서는 프리마켓뿐만 아니라, '부산남항바닷길축제', '북메이커스' 등 다른 예술 축제팀과의 협업이 이뤄져 활기 가득한 한여름 밤이 연출되었다. 11월의 M마켓은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으로 작물을 키워낸 농부들과 직접 이야기하며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M마켓을 단순한 프리마켓이 아닌 로컬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축제로 여긴다. 왓지떨어질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연결된다. 영도 안에서 일을 계획하고 물건을 팔던 사람들이 영도 바깥사람들을 만나고, 영도가 아닌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역시 영도 사람들을 만나서 마켓을 통해 소통하며, 영도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

마켓이 끝나도 봉래동 물양장의 문화의 향기는 '무명일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창고군 한가운데 위치한 무명일기는 로컬 생활 문화 공간을 표방하는 복합문화시설로, 기존 선박 수리 공업소를 개조해 디자이너들이 함께 꾸러가고 있다. 갤러리 공간을 마련해 상설전과 특별전을 열어 미니멀한 집회를 판매하기도 한다.

창고군을 거닐다보면 낯선 예술 작품을 만날 수도 있다. 빛바랜 노란색 건물 벽에 먼 곳을 응시하는 여자아이의 얼굴이 가득 차있다. 이 작품은 벽화가 구현주 작가의 '사색하는 풍경'으로 삼진이음의 의뢰로 작업됐다. 영도 로컬잡지 '비밀영도'의 인터뷰에서 구 작가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그냥 지나치는 이미지 안에서 평소 해보지 못한 생각이나 보지 못했던 이미지로 정서적·시각적 충격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아이의 시선을 따라 간다. 부산항을 지나 산복도로 마을을 지나 하늘까지 뻗어나가는 것만 같다.

북향이 보이는 골목길 끝에는 오랜 시간 비어있던 항만물류 창고를 개조한 대안 문화공간 '끼티'가 있다. 끼티 인근도 조선소가 있는 공장지대라 해가 지면 인적조차 드문 곳이지만 오디오-비주얼 공연, 건축설계 전시, 테크노 파티, 카누 교실 등 문화행사가 열리는 날이면 활기가 넘쳐난다. 예술가들의 실험적인 작품과 콘텐츠는 주변 엔지니어들과 문화행사를 고대하던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단비였다.

부산항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청학동에서도 청년 문화가 꽃피고 있다. 1997년에 지어진 3층짜리 단독주택을 개조한 '삼진이음'은 지역을 잇는 청년 활동을 하면서 만난 심보라·엄창환 부부가 운영하는 커뮤니티하우스로 얼핏 게스트하우스처럼 생겼지만 게스트하우스와는 다르다. 심오한 집은 청년이 머무르고 싶을 때 머무를 수 있게 하며, 삶을 탐색하고 싶은 시기를 원만하게 넘길 수 있게 하는 삶터이자 플랫폼이다.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심오한 영화제를 열어 사회문제를 다룬 영화를 상영하기도 하며, 한달 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흰여울길의 핫스팟으로 떠오르고 있는 '손목서가'도 영도의 문화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팀 중 하나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책방은 기자와 시사만화가로 오랫동안 활동한 손문상 화백과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시 세계로 알려진 유진목 시인 부부가 함께 꾸려나가고 있다. 1층 작은 서가에는 미술도록, 에세이, 해외원서를 비롯 페미니즘, 노동, 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책까지 흔히 볼 수 없는 구성으로 가득하다. 작은 책방을 서성이는 것만으로도 세계가 확장되는 것만 같다. 낡은 해안가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손목서가에서는 때때로 공연과 낭독회가 열린다. 밤바다의 파도소리가 아스라이 들려오는 낭만 가득한 문화거점이다.

**삼진이음**이 지금까지 해온 **대동전수방** 도시재생 사업도 구도심의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문화를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영도의 관문적인 봉래1동에서 어묵제조와 두부제조 등 노포의 기술을 전수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취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디자인 전공 학생과 상인들을 매칭해 전통시장에 숨을 불어넣기도 하며, 로컬잡지 '비밀영도'로 사람들에게 영도를 알리는 통로를 만들었다. 문화예술을 멀게만 느꼈던 지역의 건물주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공간을 지원하며 영도의 색깔을 잇는 일에 협조하고 있다.

오는 9월 영도에서는 부산비엔날레가 개최된다. 오래된 창고와 구도심 골목에서 예술이 어우러지며 영도의 문화가 또 한 번 꽃필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아닌 비어있는 곳에 문화를 채워 넣어 사람의 온기를 더하는 일, 사람으로 채워지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 우리 모두가 바라는 도시는 그런 도시다.



# 이야기를 담은 바다

글·사진 이나진

캐나다로 떠난 부산너



내 생애 내리는 눈이 지긋지긋해지는 날이 올 줄이야. 토론토에 온 첫 해 겨울, 부산에서 평생 볼 눈을 그 몇 달 새 다 봤던 것 같다. 어쩌다 친논캐버라도 흘날리는 날이면 창문을 열어 쫓기고 호들갑을 떨어대던 부산에서의 지난 이십여 년이 무색해졌다. 6년 전 여행 삼아 미국으로 처음 떠났던 길이 이곳 캐나다 토론토까지 구불구불 이어지더니, 나는 덜컥 현지 법무사가 되었고 지금은 로펌에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열 살 이후로 장래희망란에는 '작가'라는 단어만 고집스레 쓰던 내가 연고하나 없는 낯선 타국에서 법조인이 된 그림은 나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전개다. 세상 사람들이 들려주는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를 보고 듣는 게 마냥 즐거웠던 십대, 스무 살이 되면 나도 재미난 이야기를 맘껏 들려주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부산은커녕 해운대조차 제대로 벗어나본 적 없던 내가 묘사할 수 있는 건 결국 내가 살아온 좁은 세상뿐이었다. 연속극의 다음화를 기다리지 못하고 안달인 사람처럼 더욱 많은 이야기를 즐겼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질투심으로 좁이 썩서 견딜 수 없었다. 이야기꾼이 되고 싶었다. 그 핑계로 미국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에서 2년을 지내고도 모자랐는지 대뜸 캐나다로 유학행을 선언했다.

철없는 막내딸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저지른 일의 대가는 혹독했다. 꿈꿔오던 유학 생활을 시작했지만, 배움의 기쁨을 느낄 새도 없이 현실의 여러 문제들이 매 순간 나를 위협했다. 아름다운 토론토의 겨울은 춥고 시리기만 했다. 우여곡절 끝에 유일한 유학생으로 법학과를 졸업했고 공장 법무사 자격증을 따서 취업도 했다. 지금이야 한 줄로 요약하는 여정이지만 그 시절 나는 매일이 참 처절하고 구질했다. 미처 준비할 겨를 없이 나를 뒷바라지 해야 했던 부모님은 내가 떠나고 곧 거처를 옮기셨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딸을 위한 걸을 마련해 두기에는 팍팍한 살림살이가 묻지 않아도 눈에 훤히했다. 내가 타국이라는 이유로 삶의 고단함을 생색낼 때, 그들은 단 한 순간도 치열하지 않은 적 없었고 종종 아팠지만, 그 순간조차 딸의 인위를 기도했을 것이다. 그래서야 우리의 물리적 거리감이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쫓기듯 시간은 흘렀고 어느덧 부산은 내 오랜 유년시절을 품은 그리운 고향으로 기억 속에 박제되었다. 꼭 색감 예쁜 클래식 영화 장면을 모아둔 앨범처럼.

타지인에게 부산은 그저 화려한 해양도시 같은 모습일지 모르겠다. 내가 나고 자란 해운대는 이제 외지인이 더 많이 찾는 호화로운 관광지가 되었다지만, 나에게겐 여전히 작은 바다마을 고향이다. 계절마다 다른 운치가 있는 남포동과 다대포 등지는 광활한 북미 대륙에서도 비슷한 곳을 찾지 못했다. 포근한 남쪽 지방이지만 매서운 바다 바람을 피해 복잡한 골목 사이를 비집고 숨어들다보면 으레 낭만적인 풍경을 마주치는 게 익숙했던 부산. 그렇게 발걸음이 이끌리는 대로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곳, 나의 처음이자 시작.

서머타임이 시작된 토론토는 한국과 열 세 시간의 시차가 난다. 한 쪽에서는 열 세 시간 앞선 미래를, 다른 한 쪽에서는 과거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나와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모습은 스마트폰으로 생중계되고, 언젠가 내게도 당연했던 그 일상들을 엿볼 때면 모든 것이 꼭 비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우리가 정말 같은 시간 속에 존재하는 걸까. 나만 다른 공간에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다 보면 유독 극복하기 힘든 두려움이 밀려드는 밤이 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기억하는 사람들의 품으로.

휘청거리는 발걸음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끝만 보며 걷기를 몇 년. 오늘에서야 고개를 드니 광활한 대자연과 어우러진 토론토의 도시가 눈 앞에 펼쳐져 있다. 혹자는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 그렇게 까불었네 할 것이다. 맞는 말이다. 부산은 내 뿌리를 지탱시킨 최초의 양분이다.

한국에 가게 될 때마다 발목을 반갑게 빙빙 돌려 부딪거리는 고양이 주는 소속감과 안도감이란. "창작을 하려면 책상 앞이 아니라 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던 누군가의 말이 여태 가슴 깊이 새겨져 있다. '정'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무겁고 어렵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신 전해주는 이 역할을 잘 해내고 싶다. 나는 이제 소원대로 부산 바다처럼 넓은 이야기를 한껏 품은 이야기꾼이 되었다. 그러니 토론토에서의 무수히 외로웠던 밤들은 오늘에서야 의미를 지닌다.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사랑해야지. 이제야 비로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에 도착한 뒤 2일째 되는 날부터, 저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진짜 개방적이고 친절한 것은 물론, 언제든 저를 도와주고 지지해주셨죠. 그리고 항상 저를 한 가족처럼 대해주었어요. 그분들과 지금껏 함께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 만남에 얽힌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고 놀라운데요. 제가 한국 도착 후,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저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한국사람과 문화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저 한국이 얼마나 발전한 나라이고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 다닐 대학과 교수님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도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에 살기로 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첫날, 이곳에 정착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다음날 저녁에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죠.

그날 저녁, 앞으로 살게 될 아파트 근처를 산책하다가 한 카페를 발견했어요. 저는 이끌리듯 그 가게로 들어갔어요. 신기하게도 카페 사장님은 저와 영어로 소통할 수 있었고, 우리는 한국과 부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시 한국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았던 저는 사장님과 대화하면서 제 궁금증 대부분을 풀 수 있었어요. 사장님은 제게 유용한 한국생활 팁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때 카페 사장님을 만난 것이 제겐 큰 행운이었죠! 저는 그 카페를 좋아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들렀어요. 갈 때마다 저는 친구들과 맛있는 커피를 즐겼어요. 알고 보니, 그 카페는 저와 친구들과 이외에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많았고, 한국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원어민 영어 수업도 진행하고 있었어요. 카페를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었던 사장님의 아이디어였어요.

시간이 흘러 부산 생활도 점차 적응해나갔고, 그 사이 사장님과 저는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어느 날 사장님께서 제게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여기서 바리스타로 일해보지 않을래?" 왜냐면 저는 부산에 오기 전, 우즈베키스탄에서 커피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사장님은 제가 커피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걸에서 도와주시기도 해서 걱정은 없었죠. 며칠 뒤, 저는 방과 후에 그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동안

정말 즐거웠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와 제 친구들과 함께 부산의 관광지로 놀러 가기도 하고, 저 혼자라면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곳을 구경하기도 했어요. 거기에 하이킹, 수영, 스케이트도 다 같이 즐기러 다녔죠. 카페 바리스타로 일하면서 한국인과 문화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그 시간들은 저에게 최고의 기회이자 경험이 되어주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감사하게도 저는 다니던 대학의 한국어 과정을 무사히 마쳤어요. 이어서 다른 대학교에 지원해 당당히 붙었고, 제가 원하던 패션디자인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물론 저는 새로운 대학교를 따라 그 근처로 이사했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전공 과제들도 많이 생겼어요. 카페를 좋아하는 저는 이사한 아파트 근처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고 했어요. 제 단골 카페는 공부하기에 최고의 장소였고 정말 아름다웠어요. 어느 날 그 카페에서 패션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카페 사장님이 와서 제 작업을 물어봤어요. 그때를 계기로 우리는 대화를 트게 되었어요. 사장님의 전공도 저와 같은 미술 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친밀함이 느껴졌죠.

거의 매일 그 카페에서 공부를 했어요. 매일 만나다시피 하니, 사장님과 저는 이미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사이가 되었지요.(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사장님 남편은 제 고국에 여러 번 가봤었고 사장님 부부는 제 고향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사장님은 우리가 가까워진 후 맞게 된 큰 명절, 추석에 저와 제 자매를 사장님의 고향으로 초대했어요. 그곳에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예요! 카페 사장님 덕분에 저는 한국의 진정한 명절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었어요.

이 순간들은 제가 3년 동안 부산에 살면서 가장 좋았던 추억이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과 지내면서 한국문화와 한국사람들에 대해 잘 알게 되었거든요. 지금 헤아려 보면 그 끝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전 제가 부산에서 지내는 외국사람들 중 가장 운 좋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 카페로 맺은 인연, 놀라운 한국생활

글·사진 Sarvinoz Karimova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부산너



From Busan to Canada

From Uzbekistan to Busan







마리오네트 인형작가/공연가 김술



남포동 미술의거리 갤러리에 들어서자 나무와 마른 물감에서 나는 그윽한 향이 느껴졌다. 벽을 따라 색색의 목각인형들이 각자 모습을 뽐내고, 흘러나오는 음악을 반주삼아 한 남자가 전자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다. 영도에서 아내와 함께 '예술창고 히베'를 운영하는 마리오네트 공연가, 김술을 만났다.

인터뷰·글 김정원 사진 윤민호



■ 국내에는 아직 생소한 마리오네트,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35년 동안 대중음악을 했어요. 세월이 흘러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새로운 길을 찾던 중에 예전에 만난 적 있던 인형극사가 생각났어요. 그분을 찾아 전화를 하니, 사정상 가르쳐주기가 좀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학으로 시작했죠.

■ 인형도 직접 만든다고 들었어요.

마음먹으면 인형을 구할 수가 있겠지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그건 우리 형편에 맞지 않아서 직접 만들었어요. 시행착오가 워낙 많아요. 어느 정도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데 한 2년 걸렸어요. 처음엔 크기가 컸어요. 인형이 크면 무섭습니다. 사람을 닮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다르거든요. 점점 크기를 줄어가면서 공연에 적당한 사이즈를 찾았죠.

■ 부산은 물론 전국을 돌아다니며 활발히 공연 중이신데요. 공연 때 지키는 철칙이 있다면요?

첫 번째 철칙은 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긴장하면 실수를 하게 돼있어요. 공연은 실행이예요. 최선을 다해 인형을 놀게 할 때, 사람들도 알아요. 저 사람은 인형과 일체가 되었구나, 틀림없이 전달되거든요. 실수는 줄이고 즐거움은 배가 시키는 것, 그게 철칙이라면 철칙입니다.

■ 인형극은 대상이 어린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공연 초점이 성인과 어르신께 맞춰져 있다고요.

처음엔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수입이 따라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거리로 나가 버스킹을 시작했죠. 요즘 시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어른들은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마음속 기쁨과 슬픔을 밖으로 꺼내서 표현하는 사회 분위기가 아니니까요. 여기에 공연 포커스를 맞춰서요. 그래서 인형들이 연로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죠. (대부분 인형들이 백발이네요.) 기본이 일흔 살이예요. 나이 많은 인형이 주제를 떨고 웃긴 행동을 하니까, 보는 사람은 재미를 느껴요. 어떤 어르신들은 자기 속에 장난기를 떠올리며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 얼마 전 코로나19 사태에 예술계도 직격타를 입었어요. 예술가의 길에는 변수가 많은데, 그럼에도 예술을 계속하고자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시는지 궁금해요.

글쎄요. 마음속에 어떤 유전자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주변사람들이 말릴 때에도 인형이 품고 있는 꿈을 보면서 도전했어요. 큰돈을 벌기보다 '참 즐거웠어, 오늘 하루 잘 살았어.'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려고 합니다. (요즘은 하루하루 어찌신가요?) 돌이켜보면 35년, 음악 하는 동안 즐거웠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음악을 해서 제 것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스트레소도 많았고 마리오네트는 오롯이 내 공연을 준비해서 선보이는 점이 좋아요. 오래 해왔던 노래에서 행복을 못 찾았지만, 요즘엔 참 잘했다, 즐겁다는 생각이 많이 합니다.

■ 인형으로 꿈을 펼치고 계시군요. '김술 마리오네트' 공연만의 특징이 있다면요?

유럽식 인형극에는 대사가 거의 없고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관객이 자기 생각대로 인형을 바라보고 이해하죠. 근데 전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펫 할배가 울해 여든인데 그의 어머니는 백 살이 넘었다.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 이 할아버지의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익숙한 이야기니 이해가 빠르고, 인형을 통해 들으니 재밌고 새롭죠. 극에는 감동, 재미, 그리고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또 현실과 동떨어지면 안돼요. 환상은 동화책에 이미 많잖아요. 거리에 나가면 아이들은 신기해서 좋아하고 어른들은 공감을 주니까 더 좋아해요.

■ 부산, 그중에서도 영도에 자리 잡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부산 하면 바다잖아요. 해운대나 광안리 같은 바다는 번잡하고 소란스럽고, 조금은 상업성에 물든 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용하고 고독한 바다를 보고 싶은데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바다는 아닌 것 같았죠. 그런데 영도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해운대와 광안리가 갖지 않은 고즈넉함이에요. 자연 그대로의 모습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요. 영도에 예술로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영도에 온 뒤, 매주 공연을 했죠. 다른 팀을 초대해서 다양하게 공연을 구성하려니까 여력이 금방 바닥나더라고요. 2년 정도 하다가 공연보다 상설 공간을 만들자는 생각이 들어 마리오네트 갤러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요.

■ 전시를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추후 계획이나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상설무대를 통해 작지만 강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이 있어요. 영도에 인형극장이 있다고 알려지면, 부산을 찾는 사람들이 한번쯤 거쳐가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잖아요. 국내에서 인형극 한다는 지역들을 모두 가봤어요. 나무 깎는 사람 하나 없이 콘텐츠를 만들고 사람들을 불러들이더라고요. 칠곡과 춘천엔 인형극 축제도 있어요.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판을 벌였을까. 너무 부러웠죠. 목각인형 하나에서 시작해 다양한 콘텐츠들이 생겨나고, 수익도 잇달아 생겨서 생활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요. 마을 공동체와 공존하고 상생하는 구조요.

■ 마지막으로, 관객에게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던 옆집 아저씨가 하나 있었다, 그 정도면 됩니다. '한 인형극사가 있었는데, 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했어. 알고도 말 못했던 것들을 그 사람 덕에 한번쯤 생각해볼 수 있었지.' 그 정도면 전 제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 시장은 그곳에 있다

## 부산 영도구 남항시장

글 오성은 사진 윤민호, 오성은 제공



### 시장통의 아이들

우리는 그 거리를 남항 시장이라 부르지 않았다. 내 어머니에게도 이모들에게도 시장은 오직 하나 밖에 없었으니, '남항'이라 굳이 붙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내가 아는 우리 모두는 시장통의 아이들이었다.

그 길에는 후후 불어도 식지 않는 달달한 호떡을 팔았고, 팔팔 끓는 돼지 국밥을 팔았으며, 기름기 가득한 튀김과 통닭을 팔았다. 그리고 보니 죄다 뜨거운 음식뿐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뜨거운 건, 아니 뜨거운 건, 시장통 사람들이었으니, 내 친구의 할머니도 시장을 일군 사람 중 한 명이었다.

할머니의 열아홉, 피란 행렬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영도구 남항동의 전차 종점이었다. 거리의 풍경은 붓짐을 인 아낙들과 침얼거리는 아이들이 전부였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길가에 나와 붓짐을 풀고 물건을 교환하기 시작했다. 이리저리 물건이 오가는 중에 몇 전이 남으면 뺏속의 아이가 굶지 않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물가의 해초류를 주워다 팔고, 산기슭의 나물을 캐다 팔고, 다리 너머에서 과일을 떼와 팔고, 인심을 팔고, 눈물을 팔고, 욕지거리를 팔고, 속절없이 세월을 팔았다. 그러다 아득하게 들려오는 뺏고동 소리에는 속수무책으로 그리운 사람의 표정이 되어버렸지만 앞집의 손이 네도 옆집의 성심 네도 계란을 파는 더벅머리 아저씨도 고기를 내놓고 파는 칠용 네도 모두 똑같은 얼굴이라는 걸 서로들 감추려 했다. 사람들은 점점 억척스러운 시장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 내가 그 시장이었겠구나

첫째가 뺏속에서 발길질을 해대도 어디 편히 누울 데나 있었던가. 억척스런 자들만 이 살아남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영도 다리가 들리면 배들이 오가고, 다리가 내려오면 사람이 오가고, 좌판을 사이로 계절이 오가는 생존의 시대였다. 세상은 결코 그녀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았다.

젓먹이 아들을 업고 생애 첫 장사를 하려하니 잘 될 턱이 있을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도 한번 붙이지 못하고, 퍼둔 물건을 그대로 잡고 오는 날이 다반사였다. 한 여름의 땀약벌에 연신 흘리는 땀은 그네들의 눈물이었다고, 한겨울에 얼어버린 손과 발은 그네들의 통증이였다. 동상에 걸려 발은 붓다 못해 굶아갔지만 하루치 장사를 놓치면 마음이 굶았기에 마대자루로 공공 뭍고서라도 장터에 나갔다. 아이가 걸음마를 떼고 나서는 서로의 몸에 동아줄을 묶어다가 좌판 옆에서 놀게 했다. 누구라도 따라 가버리면 어떡하나. 이 어린놈을 위해 내가 사는데. 시장은 끈과 끈으로 묶인 기다란 인생이라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다. 하루하루를 버티게 한 건 그 질기고도 튼튼한 동아줄이라는 걸 우리는 모르지 않았다.

81년 즈음 새로 깔린 도로에는 자동차가 다니기 시작했고, 좌판은 점점 안으로 밀려나 지금의 거리에 자리를 잡았다. 남항의 선박 사업이 발전되었고, 북적이는 시장통 식당에 앉아 회포를 푸는 선원들이 늘어났다. 고향은 지척이라도 가지 못하는 우리네 아버들은 솜씨 좋은 손맛 찾아 사방을 쏘다녔고, 시장은 전에 없던 활기로 몸집이 불어나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 즈음부터 닭을 튀겨 팔기 시작했다.

“굽이도는 골목마다 냄새가 퍼져나갔고, 그 냄새가 이제껏 나를 먹여 살렸지. 돈도 벌고, 주름도 벌고, 상처도 벌고, 다 번 것 같은데, 하루하루는 이렇게 무심하게 가버리는구나. 길목 마다 사람이 드나들던 시장인데, 검은 봉다리를 든 사람들은 잘 먹겠다고 내게 인사를 건네고, 나는 잘 잡수라고 인사를 건넸지. 평생을 시장에서 살았으니, 아, 내가 그 시장이었겠구나, 내가 바로.”

친구와 나는 할머니를 떠올리며 소주잔을 부딪쳤다. 뜨끈하게 튀겨 나온 통닭의 구수한 냄새에 침이 고였다. 시장은 아직 그곳에 있었다.

### 모두의 시장

“기억이 가물가물 하신데, 시장 이야기만 나오면 모든 걸 볼테우신 사람처럼 그래. 이 시장에서 머느리에, 손주에, 손주의 사위까지 보셨으니 오죽하실까……. 고맙대. 남항 시장한테는 고맙다고 전하고 싶대. 지긋지긋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봐.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마음인가봐.”

친구가 말했다.  
“모두의 시장이었고, 우리 모두의 젓줄이었던걸.”

나는 친구에게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 그 말은 과거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할머니가 동아줄로 공공 묶어 키웠던 아이는 어른이 되었고, 어른은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 우리는 이제 술잔을 기울이며 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시장에는 과거가 스며있지만, 현재가 북적이고 있고, 미래가 숨 쉬고 있다. 그 속에는 끈과 끈으로 연결된 인연이 있고, 사연이 있고, 이야기가 있다. 내 어머니가 손에 쥐고 온 몇 개의 검은 비닐봉지가, 냄새를 맡으려고 얼른 봉지를 뉘아쳐어 활짝 열어보던 나의 어린 시절이 함께 녹아 있다. 만두나 떡볶이를 기대했지만 검은 봉지 안에는 붉은 생선 한 마리가 들어 있을 뿐이다. 결이 고운 생선비늘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나는 잠시 잊고 지냈던 그때의 풍경으로 되돌아가는 기분이 든다. 해질 녘의 풍경 속에는 덜 자란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두고 있다. 우리는 귀를 막은 채로 아저씨의 날렵한 손짓을 바라보며 소리를 기다리는 중이다. 뺏 하고 대포가 터지면 우리의 해맑은 미소와 함께 쌀알이 하늘 높이 튀어 오른다. 오래된 우리의 시절, 시장은 그곳에 있다.

오성은 소설가, 뮤지션  
에세이집 『바다 소년의 포구 이야기』, 『여행의 재료들』, 앤솔로지 소설집 『미니어처 하우스』, EP앨범 <This is my>가 있다.



### 소중한 지구를 지키는 환경 어벤저스

# 강.그린

## 양정실 강.그린 대표

인터뷰 글 최명신 사진 윤민호, 강.그린 제공

기후 변화는 21세기 지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다.

기후 변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생태계의 '위기'이며, 이는 곧 인간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열여섯 살의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유럽의회에 초청돼 연설을 했다.

“대기는 더욱더 오염되고, 아름다운 숲들은 사라지고, 야생동물도 사라져 가고,

바다는 산성화돼 가는데, 부자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대량 멸종의 시대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요즘,

녹색생활로 지구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동아리가 있다.

바다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영도 흰여울문화마을에서

'강.그린' 양정실 대표를 만났다.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손발 깨끗이 씻고, 주변을 청결하게 하는 것. 그게 강.친환경이고, 지구를 지키는 길입니다.



### 환경을 지키는 어벤저스, 강.그린

'강.그린'은 2016년 6월 양정실 대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생활문화동아리다. 생활 속에서 친환경을 외치는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스스로 만들어 쓰는 친환경 세제, 손세척제 등 다양한 생활 속 용품들을 직접 만들고 이러한 레시피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하고 있다. 우리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지구를 지키고 있다.

'강'이라는 말은 부사로 '어떠한 작용을 가하지 않거나 상태의 변화 없이 있는 그대로'라는 의미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그냥'이라는 말을 줄여서 '강'이라고 발음한다. '강.그린'의 의미도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가져왔다.

“그냥 친환경 생활하자는 의미예요. ‘강, 그냥, 우리는 그린이다.’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거창하고 엄청난 것들을 상상하는데, 사실 별거 없어요. 불편하고 귀찮아하던 것들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생활하면 그게 친환경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양정실 대표는 중구 보수동에서 나고 자랐다. 이곳 흰여울문화마을 근처로 시집을 오게 되면서 영도에 뿌리를 내렸다. 당시 지역에는 양어장 시설이 많아 환경오염도 심각했다.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2008년에 아로마 향초와 관련한 민간 자격증을 땀어요. 지역에서 살면서 지역민으로서 지역에 기여를 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때 평생학습과를 통해서 친환경 생활 소품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어요. 강.그린 동아리 회원분들은 거기에서 만난 분들이었어요.”

### 일상에서 실천하는 친환경 라이프를 꿈꾸다

2016년 6월, 양정실 대표가 진행하던 수업이 끝남과 동시에 동아리가 만들어졌다. 양정실 대표는 처음에는 동아리 운영에 대한 조만만 하며 한발 물러서려 했지만, 회원들에 떠밀려 동아리 대표를 맡게 되었다. 영도구 생활문화연합회에 가입해 동삼동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부터 주육 '강.그린'은 7명(양정실, 김춘희, 조은아, 최진아, 백주현, 김현정, 김가현)으로 활동을 했고, 올해로 5년을 함께 했다.

'강.그린'은 지역축제나, 시민나눔장터, 아트마켓, 영도마켓 등 다양한 축제와 플라마켓 등에서 활동을 했다. 회원들이 직접 만든 친환경 샴푸, 세제, 손세정제 등을 만들어 셀러로 참여하거나,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와 관련한 강의 요청이 있으면 어디든 달려갔다. 업사이클-리사이클 체험 클래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양정실 대표 뿐만 아니라 김춘희 회원도 강의에 나서고 있다.

“우리 강.그린 회원은 50대 중반 주부 2명과 나머지는 젊은 주부들이예요. 일상에서 많이 쓰는 생활품들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이러한 삶의 방식을 다른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생활 속에서 친환경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주부의 본업이 아니겠습니까?”

### 빌려 쓰는 지구, 아껴 쓰자

양정실 대표의 명함에는 '빌려 쓰는 지구, 아껴 쓰자! 녹색생활로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환경은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지구를 깨끗하게 보존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반납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뭔가 거창하고 어려운 것 같은 이야기지만 양정실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손발 깨끗이 씻고, 주변을 청결하게 하는 것. 그게 강, 친환경이고, 지구를 지키는 길입니다”

영화 속 어벤저스는 악당 타노스로부터 지구를 지켰다. 이들 어벤저스들은 각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의 옆에 언제나 있는 일상 속 영웅이 깨어나야 한다.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가 미래를 바꾼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옥이네집

## 대평동



# 쇠 냄새와 불꽃 향기에 더욱 맛깔 나는 곳

“영도다리를 건너 오른쪽, 대평동으로 들어간다.  
공업사의 기계 돌아가는 소리는 신경을 곤두세워 일행의 허기를 더욱 자극한다.”

글 사진 이연승(세이브트리 문화기획팀)

세월을 붙들어 매고 있는 것 같은 배들의 행렬을 지나 무작정 골목길로 들어간다. 비릿한 쇠 냄새를 맞는다. 그러인더의 불꽃이 튀고 연기가 피어오른다. 몇 명의 노동자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며 지나간다. 하나의 표식처럼 닳아 쌓여있는 골목의 안쪽을 본다. '옥이네집, 닳을 내려 오랫동안 한곳에 머물러 있는 배처럼 보이는 가게다.

우리는 비장하게 안으로 들어간다. 테이블 셋에 방이 한 칸 있는 소박한 곳이다. 작업복을 입은 아재들이 살짝 경계했다가 아무렇지 않은 듯 그들의 이야기를 한다. 일단 막걸리를 한통 주문한다. 어머니와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인 듯하다. 메뉴는 만원을 넘는 것이 없다. 돼지국밥 오천원, 회무침 칠천원, 수육은 큰 게 만원이다. 우리는 회무침과 수육을 시켜본다. 일행 중 눈치 빠른 친구가 수육을 시키면 국물이 따라 나온다는 것을 벌써 간파했던 것이다.

지극히 평범하지만 꼭 필요한 김치류의 밑반찬이 깔린다. 제법 싱싱한 맛이 입맛을 돋운다. 그세 비운 막걸리를 한 병 더하자 회무침과 수육이 준비된다. 고기를 한 점 베어 물자 육즙이 주르르 풀깃하고 찰진 것이 입안을 휘감았다. “하아... 이거 맛있는데요?” 하며 일행을 보니 모두 만족한 듯하다. 살코기와 비계의 적절한 풍미에 잘 삶아져서 마르지 않는 싸고 맛있는 수육은 이곳 사람들의 유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회무침을 먹어 본다. 거부감 없이 썰린 야채와 매콤 새콤한 양념이 싱싱한 제철 회를 감싸는 조화가 일품이다. 거침없이 먹고 마시는 우리다. 그리고 거침없이 그날그날 다른 오늘의 메뉴를 시켜본다. 멍게다. 다리건너 바로 자갈치 시장이 있으니 싱싱하고 시원한 바다가 느껴질 수밖에 없다.

Information

**MENU** 돼지국밥 5,000원  
물회 7,000원  
수육 대 10,000원  
수육 소 5,000원  
회무침 10,000원

**ADD** 부산 영도구 대평로50번길 8

**CLOSE** 오전 8시~오후 8시  
(자주 변경됨, 일요일 휴무)

영도에는 오래도록 맛있었던 집도 많고, 맛있어서 오래된 것 같은 집도 많다. 아마도 근대 산업의 역사와 지금이 잘 어우러져 사람들을 여겨져서 만나게 하는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옥이네집이 그런 곳이다. 수리조선소의 노동자, 280여 개가 넘는 공업사와 선박 부품업체, 그리고 그곳에 일하는 가족들의 꿈을 만든 곳에 소박하게 지어내는 상차림이 휴식이 되고 사람들을 이어주는 곳이다.

## 영도의 새로운 문화예술 랜드마크

# 광강이예술마을을 말한다

영도대교를 건너면 기름때 묻은 창고가 즐비한 독특한 마을이 있다.  
원양어업 붐이 일던 1970~80년대엔 수리조선산업의 메카였던 이곳은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입소문이 나며 영도의 새로운 문화예술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지금은 잠시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만 마음의 거리만큼은 가까이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곳,  
광강이예술마을을 알아보자.



광강이예술마을 총면적	총 세대수	마을 전체 인구	65세 이상 노인
162,631.1 m <sup>2</sup>	1,176 세대	2,771 명	694 명

### 광강이예술마을 조성사업

광강이예술마을 조성사업은 문화예술을 통해 쇠퇴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입니다. 19세기 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선소가 세워졌던 영도 대평동(남항동)은 근대조선산업의 발상지로서 다양한 근대산업유산과 생활문화자원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문화공간이 있는 영도의 새로운 랜드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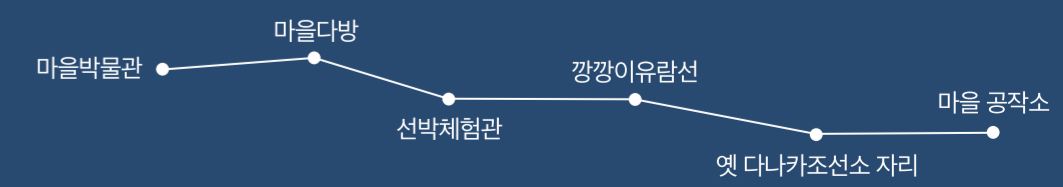
<p><b>광강이생활문화센터</b></p> <p>1층은 마을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평마을 다방과 공동체부엌이 있고 마을기념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p>	<p><b>광강이안내센터</b></p> <p>마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안내센터이자 광강이유람선과 마을투어를 운영한다. (월요일 휴관)</p>
<p><b>신기한 선박체험관</b></p> <p>광강이마을의 예인선에 다양한 예술가들의 상상이 더해져 인체적으로 구성된 새로운 선박체험공간이다.</p>	<p><b>광강이마을공작소</b></p> <p>메이커스 프로그램, 목수동아리의 작업장으로 활용되며, 방문객을 위한 제작키트 조립체험을 진행한다.</p>

사업기간	사업예산
2년 4개월	35 억 원



### 광강이예술마을 투어

광강이해상투어(유람선)	패키지투어(해상투어+마을투어)
20 분 6,000 원	1시간 10분 10,000 원
광강이마을투어(사전예약)	
40 분 6,000 원	





영도할매 추천 **핫플**

가긴 어쩔가,  
여와와라!

# 강강이 생활문화센터

글 김정원 사진 강강이예술마을사업단 제공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에서 방문객과 현지인이 찾는 곳이 각자 다르듯이, 진짜 핫한 곳은 그 지역 로컬러에게 들어봐야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영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을 찾았다. 바로 영도 찐로컬러 '영도할매'다. 오랜 시간 영도를 지켜봐 온 그녀가 추천하는 장소는 과연 어디일까.



핫플: '핫플레이스(hot place)'를 줄여 이르는 말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인기 있는 장소'를 뜻한다. (출처: 우리말샘)

## 내를 따라 와 보라카이!

### 강강이생활문화센터

#### 1층 대평마을 다방 & 커뮤니티 홀

아침 9시에 딱 와 보든 그새 두세 명 와가지고 이바구 찌고 있다고. 커핀가 워신가 종류도 많아, 고거 한 잔 훌쩍이는 거지. 자리도 억수로 넓다. 테이블 15개, 60명이나 앉을 수 있으니까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 기특한 게, 주민들이 운영하는 데라네. 카페에서 찌짐도 부쳐 묵고 그란다. 가서 니도 한 장 얻어 무라. 대평마을 사진 전시도 보고, 기념품도 구경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



#### 2층 마을박물관, 체력단련장, 회의실

점심 묵고 속도 든든히 채웠으니까 마을박물관 구경 가자. 2층으로 올라와봐라. 여기는 한 100년 동안 차곡차곡 쌓인 대평동 수리조선업 동네 역사와 주민들 생활사를 다 모아 놨단다. 유물도 있고, 영상과 글, 사진, 예술작품까지 오만 게 다 있다. 대평동에 관해서는 내 보담도 더 자세히 알려줄 끼라. 내는 요새 기억력이 신통치 않아서, 흠흠.



운영시간 | 평일, 주말 10시-17시  
위 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로 27번길 6, 강강이생활문화센터  
문 의 | 051-418-3336

####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내가 바로 그 유명한 영도 할매다. 악명이 좀 높제? 내 무서워서 밤에 이사 간다고 고생이 많았다이가. 영도 산답서 내를 모르면 간첩이라. 내 이래 이바구를 시작하지만, 눈물 콧물 빼고 여기서 벨 꼴을 다 보고 살았다. 여기 사람들이 고생스럽게 산 거, 내 다 알지.

여기도 한창 북적일 때가 있었다. 해 뜨는 새벽부터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내내 강강거리는 소리로 전신에 난리였거든. 강강 소리가 잠잠해지더니 북작북작하던 영도도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뿌대. 내 때에 밤에 몰래 이사 간다는 말도 사실 다 옛말이라. 마을이 행하다.

#### 요즘 영도는 달라진 것 같은데요?

그래, 요새는 참 웃긴데이. 담배라에 알록달록 그림 그리고, 몇백 년을 살아도 생전 처음 보는 동상을 세워가 마을이 희한해졌다이가. 그걸 볼라꼬 그런가, 이제는 밖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데이. 들어와서 뭐 만들어볼 끼라고 푹푹따닥기려 썼드만. 가끔은 진짜 옛날맨치로 시끌벅적하다니까!

#### 영도에 딱 한 장소를 추천 해주신다면?

저어짜 봉래산도 좋고, 태종대도 좋고 다 좋지. 근데 한 군데만? (잠시 고민) 그래, 내 어기처럼 사연 많은 곳도 못 봤다.

**일제강점기**, 그때는 여기에 '서본원사(니시훈간지, 西本願寺)라고 일본 사찰이 있었다. 일본 불교를 전파한다꼬 사찰을 그래 커다랗게 지어놔었다. 그라고 **해방 후**에 사찰은 철거해뿌고, 대평동에서 이 땅을 불하 받았어. 그래가 이제 **마을 공동 소유**가 된 거지. 그 때 콘크리트 건물 올렸다가. 거기 1층에 **대평유치원**을 세워서 뱅아리들을 모아놓고 '가가거거' 같키고 그랬다. 아이고, 한국전쟁 니 기억나나.

#### (그땐 저희 부모님도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맞나. 아무튼 **한국전쟁 때** 난리는,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그 정도는 아닐 끼라. 전쟁 터지고, 사람들이 몰릴 듯이 피란 왔다. 아들은 배고파 뻥뻥 울고. 그때는 여기서 피란민을 멕이고 재우고 그랬다. **임시 피란민 수용소**가 된 셈이지.

**그 뒤로 60년**이 넘도록 **1층은 유치원, 2층은 마을회관**으로 지냈다. 거기 모여서 마을회 의하고 잔치도 하고. 또 **체력단련장**도 맨들어서 사람들이 들나날락 했지. 대평동 아들 중에 여기 모르는 사람 없을 걸. 여기서 주민들 다 쟁기고, 뭐라도 있으면 다 노나 멕이고 그랬다. 그래, 인자 와서 보이, 그 긴 세월 속에 사람들의 애환이 옥수로 묻어있는 곳 아니겠다.



옛 대평유치원과 대평동 마을회관

#### 그래서 거기가 어디죠?

강강이! 내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다이가. 그 사연 많은 곳이 **2018년에 강강이생활문화센터**가 됐다. 강강이예술마을 조성사업(2017)인가 하근서 리모델링도 하고 아예 센터를 만들데. 그때 개관행사도 했는데 니 모르나?



# 희내라!

## 부산 예술인

문화예술로 다시 달리는 부산을 위해  
부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로  
잠시 멈춤에 동참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안전한 미래가  
우리 곁에 한걸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문화예술로 다시 달리는 활기찬 부산을 위해  
부산문화재단이 함께하겠습니다.



## 코로나 19를 이기는 새로운 일상, 다 함께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

#### 제1수칙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제2수칙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기 건강 거리두기

#### 제3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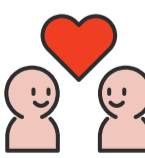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 제4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제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